

오키스트라 여성 지휘자 김경희씨

인 터 뷰

4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아카데미앙상블(단장 손명자) 제34회 정기연주회에서 지휘자 김경희(32)씨를 만났다.

“처음 오키스트라 단원들과 만나면 ‘여자구나, 어디 잘 하나 보자’하고 견제하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음악에 몰두하다 보면 서로 남자 여자라는 생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자그마한 키, 깡마른 체구에 까만 연미복을 입고 지휘봉을 잡은 김씨는 신들린 듯 힘 있게



국민학교 합창단 시절 지휘자 꿈 키워 남성의 ‘경계’ 눈초리 ‘음악몰두’로 떨쳐

25명의 단원들을 이끌어갔다.

여성으로서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오키스트라 지휘자인 김씨는 6년간 독일 서베를린 국립 음대 지휘과에서 공부한 뒤 지난해 9월 귀국, 현재 숙명여대에서 ‘지휘법’, ‘시창청음’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독유학 당시 국립음대 오페라와 베를린 심포니 오키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으며 귀국 뒤 지난 5월에는 대전오키스트라를 객원지휘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아직 여성지휘는 불모지라 음악계나 관중들이 낯설어 하지요, 솔직히 여성에게 오키스트라 지휘를 맡기는 것은 크게 인심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입니다.”

그래서 김씨는 후배양성에 열성을 쏟아 후배들이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상담해 오면 통솔력이 있는지를 판단, 공부할 방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지휘를 맡으면 단원들과의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 가면 척척 따라 오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금방 흐트러지지요, 모르면서 아는 체하면 단원들의 불신감이 생기므로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지요, 그게 제가 터득한 비법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부터 지휘자의 꿈을 키워 온 김씨는 숙대 작곡과 졸업 뒤 꿈을 이루기 위해 독일 유학길에 나섰다.

독일에서 만난 정준수(35·경희대 음대 전임강사)씨와 결혼, 딸 담온(4)이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상임지휘자로 늙어 죽을 때까지 지휘봉을 잡고 싶습니다”라고 아무지게 말한다.

〈김미경 기자〉